

2021年 제7회 이사회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

# 회 의 자 료

일 시 : 2021.06.14.(월) 16:00

장 소 : 줌 화상회의



한국전기안전연합회

KOREA ELECTRIC SAFETY ASSOCIATION

# 회 순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3. 의장인사

4. 보고사항

I 전차 회의록 보고

- 2021년 제6회 이사회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 회의록
- 2021년 제1회 발전위원회 회의록

II 업무보고

5. 심의안건

제1호 의안 : 전기안전연합회 현안 검토의 건

6. 기타토의

7. 폐 회

## 4 보고 사항

I -1전차회의록 보고 : 2021년 제6회 이사회 시·도회장합동회의 회의록

1. 일 시 : 2021. 5. 31(월) 16:00 ~ 19:00

2. 장 소 : 줌 화상회의

3. 참석자 : 총 13명

o 회 장 : 임종규 회장,

o 부회장 : 한선(수석), 홍경화, 정영재, 이병우

o 이 사 : 서영범, 박두희, 윤선중

o 시·도회장 : 안상성, 정상석, 황동길, 고영대, 유영만

o 간 사 : 김재식

4. 보고사항

가) 전차회의록 보고

나) 업무보고

5. 심의 안건

1) 제1호 의안 : 전기안전연합회 현안 검토의 건

-5월 21일 실시한 대행업계 발전을 위한 대행세미나에서 기술인협회에서 준비한 연합회 활성화를 통한 대행업 발전방안 주요 내용이 안전연합회에서 추구하는 발전방안과 다음에 대하여 여러 의견들을 교환하다.

① 기술인협회의 의도를 고려하면 기술인협회장의 의중을 재확인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전국적인 조직 구성과 통합에 대해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현실을 직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③ 기술인협회에서 세미나 전부터 안전연합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암시를 주었고 이제는 통합추진위에 대한 것을 토론해야 한다.

④ 미활동, 미조직 시도회가 활성화되려면 안전연합회 조직이 전국적 조직이 아니므로 연합회 입장만을 주장하지 말고 통합을 위한 협의에서는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의지를 고집할 경우 기술인협회에서 별도 조직을 구성할 것이므로 그럴 경우 기술인협회와 연결 고리가 끊어지게 된다. 이제는 전국적인 조직활성화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며 항의는 시기적으로 늦었고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한다.

⑥ 이번 세미나는 안전연합회의 의도와 다르게 진행된 점들에 대하여 기술인협회에 항의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우리의 입장에서 정통성을 지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⑦ 현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 볼때 기술인협회의 의도가 분명하므로 항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조직 활성화를 위한다면 새 임원으로 구성해야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려하는 것은 오산이다.

⑧ 기술인협회장이 대외적으로 선언한 내용을 지렛대로 삼아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고 새 집행부는 안에서 구성해야지 밖에서 구성하는 것은 안된다. 어떻게 하든 안전연합회의 주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의장이 전체조직 합류 방안에 대하여 기술인협회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에 대해 묻고 이에 대해 아래의 의견들이 있었으며 우리의 입장 표명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거수를 통하여 결정한 결과 우리의 입장을 기술인협회에 표명하기로 하다.

① 연합회에 법과 규정이 있으므로 타의에 휘둘리거나 그들의 의도대로 끌려갈 이유도 없고 분명히 우리 입장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

② 유감표명을 하고, 통합추진위가 구성된다면 기술인협회의 의중을 존중하되 안전연합회가 구심점이 되어 협의하도록 하자.

③ 심도 있고 심각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정리를 잘 해서 창구역할을 할수 있는 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여러번 만나서 발전 방안을 추진해 가자.

④ 통합추진위원회보다 발전위원회가 적합한 명칭인거 같다.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은 연합회에서 하고 A~Z까지 논의할 수 있게 하자.

-의장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섭섭하게 많지만 대행업 발전 명제하에 발전 위원회를 시·도회장들로 구성하고 한선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기로 하다.

## I -2 전차회의록 보고 : 2021년 제1회 발전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21. 6. 7(월) 16:00 ~ 18:00

2. 장 소 : 줌 화상회의

3. 참석자 : 총 12명

o 회 장 : 임종규 회장,

o 부회장 : 홍경화,

o 발전위원(시·도회장) : 한 선(위원장), 정영재, 이병우, 안상성, 정상석, 황동길,  
고영대, 유영만, 양경희, 송석봉

o 간 사 : 김재식

4. 심의 안건

1) 제1호 의안 : 안전연합회 발전위원회 발족의 건

기술인협회에서 6월10일 추진하는 안전연합회 활성화를 통한 통합추진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요청(법제팀-232, 2021.6.3.)에 대하여 긴급현안회의를 열어 논의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 ① 안전연합회 조직활성화 및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발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여 위원장으로 한 선 수석부회장, 위원은 시·도회장으로 구성하다.
- ② 5월21일 진행된 세미나에 대한 안전연합회의 입장을 6월3일에 기술인협회로 발송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전위원장이 기술인협회장과 만나기로(6.8) 하고 현안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겠지만 잘 조율하겠다고 말하다.

- ③ 대화 창구를 확대하려면 안전연합회의 입장을 정리하여 공식화 하고 통합을 대의명분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
- ④ 안전연합회는 업단체이고 기술인협회는 인단체이므로 기술인협회에 맞추려 하기보다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큰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고 전국연합회로써 정체성을 가지고 기술인협회와 대화해야 한다.
- ⑤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우리와 의견이 대립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 ⑥ 안전연합회가 기술인협회에 소속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끼리의 논의가 탁상공론이 될 수가 있다.
- ⑦ 발전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면 모든거 다 내려놓고 기술인협회와 대화해야 한다. 우리는 친목단체가 아니다. 산자부가 안전공사를 통해 전기안전관리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 ⑧ 중요한 것은 통합이나 발전방안 논의는 우리 연합회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기술인협회에서 받은 문서도 있으므로 위축되지 말고 발전의 장을 만들어 발전방안을 협의하고 협조를 요청하자.
- ⑨ 연합회 중심으로 조직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중요하고 협회주도로 갈건지, 동참해서 갈건지, 독자적으로 갈건지, 또한 대행업 발전이 주목적인지 아니면 협회로 예속시키려 하는지 10일에 통합추진위원회 한다는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발전 위원장이 발전방안을 2개로 표현하면 기술인협회와의 관계 개선과 전국적인 조직 확대 방안을 찾는 것이므로 기술인협회가 조직한다는 대행협의회는 인정할 수 없고 우리를 통해서 통합방안이 진행되어야 한다.

## 2) 제2호 의안 : 통합추진위원회 참석 및 향후계획 검토의 검

- ① 의장이 통합추진 위원회 참석여부에 대해 의견을 묻고 일부 참석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가 통합추진 위원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6월10일 실시되는 통합추진위원회는 불참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다.
- ② 발전위원회에 참석한 연합회장이, 어떤 선택이든 단합이 중요하고 전국조직으로 갈수 있다면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도 발전위원회에 위임하겠다고 말하고 우리 조직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며 지금 진행되는 과정들을 일반회원도 공감할 수 있도록 공유해면 좋겠다고 말하고 발전위원장이 기술인협회에 대표로 참석하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달라고 말하고 이어서 미가입 시·도회와 탈퇴한 서울, 울산시회 등에 연합회 합류 및 가입을 위해 노력해온 과정 및 충남도회에 방문했던 내용을 설명하다.
- ③ 의장이 기술인협회 통합추진위원회에 대표로 참석한다고 말하고 우리연합회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달라고 말하고 폐회하다.

## II 업무보고

### 1. 2021년도 중앙회 및 시·도회 활동상황

- 1월20일 : 제1회 운영위원회의 (장소: 줌 화상회의)
- 2월2일 : 제1회 이사회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 (장소: 줌 화상회의)
- 2월5일 : 제2회 선관위원회의 및 후보 합의사항 확인(장소: 문래동 중앙회사무실)
- 2월26일 : 제25차 정기총회 실시(공군호텔 매실)
- 3월4일 : 기술인협회에 총회 지원금(200만원) 요청
- 3월4일 : 고전주 회장후보의 회장선거에 대한 이의제기문 접수
- 3월13일 : 전국 대행업체에 연합회장 인사말 발송
- 3월15일 : (주)대한TES대표. 최장희(경기북동),  
진홍전기안전(주)대표. 안상연(강원) 정회원가입
- 3월17일 : 제3회 선관위원회의(대전)
- 3월18일 : (유)서부전기안전관리 대표 장우섭(충남) 정회원가입
- 3월18일 : 고전주 회장후보의 회장선거에 대한 이의제기문 회신
- 3월26일 : 제2회 이사회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 (장소: 문래동 중앙회사무실)
- 4월23일 : 제3회 이사회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 (장소: 줌 화상회의)
- 5월7일 : 제4회 이사회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 (장소: 줌 화상회의)
- 5월18일 : 제5회 이사회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 (장소: 줌 화상회의)
- 5월21일 :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발전을 위한 전기안전관리 대행세미나(공군호텔 2층)
- 5월31일 : 제6회 이사회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 (장소: 줌 화상회의)
- 6월7일 : 제1회 발전위원회의 (장소 : 줌 화상회의)
- 6월14일 : 제7회 이사회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 (장소: 줌 화상회의)

## 5. 심의안건

○ 제1호 의안 : 전기안전연합회 현안 검토의 건

제안사유 : 5월21일 실시한 안전관리 대행세미나 및 기술인협회에서 6월10일 실시한  
안전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통합추진위원회의 관련한 사항을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

## 6. 기타토의

## 7. 폐회